

< 3월에 드리는 말라위 선교편지 >

말라위 헝거시즌에 들리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식들로 인해 한인 선교사와 NGO에서 근무하는 한인들을 위축하게 합니다. 그래도 말라위에서는 배고픔으로 인한 뉴스는 종종 접했었지만 이번처럼 한인이 변을 당하는 일은 아주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말라위 라디오 방송이나 뉴스에서는 일체의 언급이 없는 것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센터안에 스마트스쿨이 완공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 말라위 현 상황



말라위에서는 매년 11월부터 4월의 기간을 우기시즌으로 구분하고 이때를 헝거 시즌이라고 불립니다. 다른 해도 헝거시즌을 지내기가 쉽지 않았었지만 코로나이후와 우크라 전쟁이후로 한해 한 해 보내기가 녹록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금년 우기시즌에는 다른 해처럼 비가 자주 내리지도 않았지만 한번 비가 오면 며칠동안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폭우가 내려서 은코타코타 및 카롱가 등 말라위 북부 지역의 큰 타운들이 물에 완전히 잠긴 데다가 얼마전에 유치원을 건축하였던 치시 타운 음포넬라 지역도 수해피해가 막대합니다.

말라위는 배수시설이 생각보다 잘되어 있는데 저지역의 경우 언제나 폭우가 내릴적이면 으레 침수피해를 당합니다. 또한 남쪽에서는 비가 거의 오지를 않아 많은 옥수수 농지들이 가물어 타서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금년도 옥수수 수확도 불 보듯 합니다.

현재 옥수수 한가마에 60,000과차를 상회하는 지역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의 은혜아래에서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민족들을 복음의 민족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 스마트스쿨



한국의 드림스드림은 열방에 만개의 학교를 건축한다는 슬로건하에 아주 열심을 가지고 후원하는 단체입니다. 이번에 완성하게 된 스마트스쿨은 직업전문학교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컴퓨터를 후원해주시고 여러 소프트웨어를 후원해주신 동역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후원에 힘입어 드디어 스마트스쿨에서 컴퓨터를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당장 직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Tailor School을 열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곳 말라위에서는 마땅한 직업이 없기에 빌리지마다 여러 명의 재봉사(Tailor)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능하고 실력있는 재봉선생님을 구했습니다.

아직 재봉틀 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로 인해 두세 달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차츰 규모와 교육빈도를 늘려가려고 하고 있으나 당장 재봉틀이 10대 정도 있어야 합니다. 대당 가격이 400,000과차(한화 300,000원)이어서 다소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지만 풍성하신 하나님의 공급을 바라봅니다.

이 스마트스쿨을 통해서 행하실 주님의 나라에 대해 많은 기대와 설렘이 느껴 집니다. 동역자님들의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샬롬

- Ivy 죽음



말라위에서는 가장 흔한 일이 죽음입니다. 장례식이 있는 날이면 덩 달아서 아이들도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빌리지에 있다는 이유로 어떠한 공사나 심지어는 예배행위도 방해를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우리 말라위 큰빛교회에 다니는 7살 여자 어린이가 말라리아로 갑자기 죽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3년 전에 이삭이라는 우리 센터 가드너 아들이 말라리아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먼저 병원부터 가서 치료를 받고 그 뒤에 영수증을 가져오면 무조건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비가 왜 병원을 제때에 가지 않아 말라리아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가슴이 철렁 내려 앉습니다. 그래서 리더 쉽을 통해서 장례지원에 대해 협의를 하였습니다.

우선은 관을 만들 목재를 구입하여 관을 만들고 장례식에 참여할 추모객 즉 빌리지 현지인을 위해 옥수수 한가마와 또 우리 교인들의 몫으로 우파를 제공하였습니다.

로드릭 목사님과 조셉 목사님을 장례 집행 목사님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수백명의 사람들이 장례에 참여하여 애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3일에 걸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하지만 아이비 그 어린 영혼이 정말로 구원 받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죽기 바로 십 여일 전에 어른들과 Youth Ministry들은 구원에 관한 교육을 시켰지만 어린이들은 어리다는 이유로 제외하였습니다.

하지만 말라위에서는 어린 영혼들이 갑자기 질병이나 영양실조로 이세상을 떠나

고 있기에 앞으로는 어린이들을 위한 주일학교 프로그램에 별도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제가 말라위에 올 당시만해도 평균연령이 45세 전후였지만 지금은 50세 전후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이나 캐나다 보다 훨씬 수명이 짧은 현지인들의 복음 전파와 구원을 위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유치원 영양 죽



헝거 시즌에는 어느 곳을 가나 먹을 곳이 없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어린아이들에게는 영양 결핍으로 인해 말라리아나 질병으로 해마다 많은 어린이들이 죽어갑니다.

저희가 유치원 건물이 들어선 이후로 많은 어린이들이 등록을 하게 됩니다. 종전에는 40여명 규모였으나 이제는 거의 두배 수준인 90여명이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늦게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유치원을 다닐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일단 등록된 어린이들은 영양 죽과 간식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또한 3년 전에 6살 이삭이 말라리아로 죽고 난 이후로는 아픈 어린이들에게는 누구나 병원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우기시즌에는 매일 10여명에서 많을 때는 20여명까지 질병으로 결석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인근 빌리지 에서도 입소문이 나게 되어 우리 큰빛 유치원을 많은 학부모들이 찾고 있습니다. 현재 두 칸의 교실이 유치원 학생들로 만원을 이룹니다. 이 어린이들은 말라위의 다음세대의 주인공으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말라위 현지 어린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 기도제목

- 현재 말라위는 식량난 및 폭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혜와 인내로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 진행중인 새마을 운동지역 중 100가정 집짓기 및 수리지역등 말라위 새마을운동 지역을 하고 있는데 현지인들이 눈에 보이는 이익만 추구하고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어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매주 토요일마다 영어교실과 청소년DMB지역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복음을 잘 전할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스마트스쿨 건축이 완공되어 실습용 재봉틀 10대가 필요합니다. 당장 필요한 재정을 주시옵소서
-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기위해 젊은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컴퓨터, 유치원, 청소년 영어교사, 그리고 재봉틀과 각종 직업훈련에 필요한 장단기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라위 민경화/홍희선교사드림